

# 부산진구, 부전역 KTX 지정 촉구... 복합환승센터 만든다

중앙선-동해선 교통거점 부산 올해 말까지 맞이길 조성 사업 시, '복합환승센터 건립' 용역

부산 부전역이 중앙선과 동해선의 시·종착역으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부산진구는 부전역을 KTX 정차역으로 지정을 촉구하고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부산 부산진구에 따르면 부전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중앙선과 강릉역을 연결하는 동해선이 개통하면서 부전역 일대가 활성화되고 있다.

부전역~청량리역(427km) 노선은 시속 260km의 KTX-이음이 달린다. 부전역~강릉역 노선은 시속 150km의 KTX-마음 열차가 투입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KTX-이음이 이 노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부전역은 이미 동해선 광역전철,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시종착점, 부산형 급행철도(BuTX) 중간역으로 이용되거나 이용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부전역 일대를 정비하



부전역 전경

기 위해 '부전역(고속철도) 맞이길 조성사업'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맞이길 조성은 3개 구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구간은 부전역 앞 광장 및 횡단보도 등 보도블록 노면 개선을 추진한다. 캐리어를 들고 부산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안전한 보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2구간은 부전역에서 도시철도 1호선 부전역 사이 좌측 인도 구간이다. 이 구간에는 부전시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노후화된 카트보관소 및 적치물 등이 있다. 이를 정비하고 보

도블록도 교체해 깔끔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3구간은 2구간과 같은 구간의 우측 인도 구간이다. 이곳은 부전시장의 공용주차장이 있으며, 화단이 있지만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야간 조형물 등 설치를 통해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버스 정류소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화단 등에 고사한 수목을 제거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부전역을 KTX 경부선 정차역으로 지정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도 추진한다.

KTX 경부선 정차역 지정은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KTX 노선에 지하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전역의 지하에는 KTX 경부선이 지나가고 있고 분기기와 승강장 부지가 확보된 만큼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10여 년 만에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 추진에 나선다. 용역은 복합환승센터 경제성을 평가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 기본 구상 등을 수립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용역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이달 말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전역 KTX 정차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 서명운동을 벌인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부전역이 부산 주요 지점에서 부산역보다 평균 5~12분 가까운 만큼 KTX 경부선이 정차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기관에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2025 Gyeongsan Trade Delegation Pre-Türkiye Business Meeting

### 경산시, 유럽서 3400만달러 MOU 성과

경산시는 튀르키예와 체코에 8개 관내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실질적인 계약을 이끌어 내고 있다. 튀르키예에서는 3015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9건을 체결했으며, 체코에서는 385만 달러(7건)의 성과를 거두며 역대 무역사절단 가운데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경산시

### 칠곡군

#### '로컬브랜딩 사업' 공모 선정

경북 칠곡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억원을 확보했다.

칠곡군은 물자를 나르던 중간 거점에서 자전거타기 좋은 체류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군은 왜관읍 일대를 자연환경, 역사문화자원, 생활권 인프라를 연결해 라이딩을 넘어 지역의 스토리를 체험하는 '라이프 스타일형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칠곡(경북)=김준환 기자 kih9@

### 김해시

#### 공항소음 피해 학생 장학금 지원

김해시가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학생 300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김해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조례를 제정해 장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후 8년째 장학금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에 대상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4월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상반기에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장학금을 지원해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 1주년

### 여객터미널 실시설계 등 건설 박차

인허가 등 주요절차 마무리 계획 보상 관련 지역주민 적극 소통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공단은 남부권 글로벌 관문공항으로 건설될 가덕도신공항을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고의 공항 건설을 목표로, 지난 1년 동안 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

공단은 올해 본격적인 건설 착공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마무리하고, 거버넌스 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도 발굴 및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여객터미널·부대건물 등 공항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이어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가 적격 판정을 받으면 현장 진입도로 및 안전 울타리 등의 우선 시공분 착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인허가와 육지보상 등의 절차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의 선결과제인 보상 문제의 경우 지역주민들과 적극 소통해가면서 원만하게 손실보상 절차와 이주대책 수립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덕도신공항이 완성되면 항공(공항), 해운(항만), 철도, 도로 네 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쿼트로-포트(Quattro-Port)가 구축된다.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산업구조 재편을 뒷받침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포항시 "올해 일자리 정책, 6092억 투입"

3만3800개 일자리 창출 계획

포항시가 올해 일자리 창출 계획을 확정하고, 일자리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계획은 지난달 31일 수립해 시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5년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시는 올해 일자리 정책 비전을 '시민 중심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도시 포항'으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실천 과제로는 ▲미래 신산업 기반 일자리 ▲선진 도시형 인프라 일자리 ▲수요-공급 맞춤형 일자리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일자리를 제시했다.

시는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등 7개 분야에 총 6092억원을 투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입해 지난해보다 600개 많은 3만3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 산업의 불황과 이차전지 산업의 수요 정체 등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 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고용 안정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집중한다.

청년 일자리 분야는 청년창업LAB, 포항청춘센터, 창업플랫폼 등 애초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일자리공감패이 등으로 단계별 맞춤형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철강 고도화,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주력 산업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과 여성 전기기능공 양성, 신중년 재취업 등 계층별 특화 일자리도 확대한다.

## 전남교육청, '특성화 모델학교' 사업 고도화

학령인구 감소 위기 대응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형 작은 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

2024년 선정돼 운영 중인 특성화 모델학교는 ▲목포서산초(바다浪학교) ▲화양초(학생작가학교) ▲서삼초(THE+ 건강한 아토피 안심학교) ▲중동초(산수유골 씨네스쿨) ▲삼기초(마을을 품은 권있는 영화학교) ▲덕진초(월출 요리조리학교) ▲간문초(영어뮤지컬학교) ▲별량초(지구별 생태학교) ▲고흥대서중(글로벌



'할리우드 영화학교' 청풍초등학교 영화프로젝트 학습 /전남교육청

컬 학교) ▲나주부황중(국악예술감성학교)등 10개다.

올해는 청풍초(할리우드 영화학교), 군남초(균형성장학교), 팔금초(물너울학교) 등 3곳이 추가 지정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부산시-코레일, 노숙인 일자리 창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자립 지원

노숙인들에게 부산역 환경미화과 계도 활동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을 부산시와 한국철도공사, 지원센터가 함께 추진한다.

부산시는 한국철도공사(부산경남본부),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와 '2025년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숙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사람은 오는 5월부터 부산역과 구포역에서 환경미화 활동과 동료 노숙인에 대한 계도 활동을 하고 월 90만원(일 3시간)의 급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 활동, 취업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